

5기 한총련 중앙위원회 현장취재

# 한총련 강화와 발전, 종단결

## 범민족연합과 함께 통일운동 전개

5기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정기중앙위원회가 지난 21, 22일 양일에 걸쳐 한양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렸다. 작년 연세대 사태 이후 한총련에 대한 탄압이 심해 한총련중앙위원회는 회의장소를 동국대로 정했지만 전경들의 원천봉쇄로 급히 장소가 한양대로 바뀌었다. 회의장소인 한양대 강의실에는 한총련 중앙위원들을 비롯한 각 대학 참관인 등 1백50여명이 모였고 외부로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열지 않은 채 커튼을 쳤으며, 외부로의 전화사용을 금지했다. 본회의 1부에서는 한총련 중앙집행간부 인준 및 특별기구장 선출이 있었다. 간부 인준회의에 박정훈(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제출한 '한총련 간부 3명의 반조국적 행위에 대한 인준거부'에 대해 '간부 3명은 조직의 위상을 훼손시켰으므로 인

준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찬성 의견과 '조직중심단결위해 계속 인준하여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토론이후 거수에 붙었으나, 1백37명중 찬성41표 반대88표로 부결되어 원안대로 인준되었다. 다음날 시립대로 장소를 옮겨 열린 2부회의에서는 한총련 총노선토론과 한국연합 사업에 대해 한총련 임시위원장, 전남대 총학생회장(군)은 "한총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맹경화중이다. 각 집단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이 마련되지 않아 서울에서 보낸 지침이 한달이 넘어야 지방에 도착한다"고 말해 어려운 한총련 내부상황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5기 한총련의 장선거 출마자인 지현찬(고대 총학생회장)군의 소견발표가 있었고, 또 다른 후보인 강위원군은 이후 전국

연합 참가를 위해 미리 이동하여 소견 발표를 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한총련 의장을 선출하는 대의원회의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회의가 가능한 대학에서 소집할 것을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중앙위원들은 전대협-한총련 10년의 학생운동역사를 결속짓고 5기 한총련의 강화와 발전, 종단결이라는 명제 아래 진행되었다. 총노선 토론과 함께 올해 8·15 통일대회상과 15대 대통령선거에 관련한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상정안에 대한 한총련 공식입장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8·15통일대회상과 관련해 한총련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범민족연합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벌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원안과 달리 △범민족연합과 공동위원장, 학원자주화추진 위원장 선출, 특별안전으로 지난해 8·15 통

일이 질의응답, 찬반토론의 과정과 함께 표결을 거쳐 합의하였다. 이 결과 범민련이 3자연대의 본체이고 원칙을 중심으로 전민족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3자연대를 통해 단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심이 되어 반대 71, 찬성 28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며 원안 그대로 수용되었다. 아울러 15대 대선에 관해서도 △전국연합에서 독자후보를 세우더라도 지지자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후보선출 중심보다는 범국민적인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현정권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제2의 6월 항쟁의 신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중론이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가운데 표결을 벌였으나 이전안이 부결되어 원안이 그대로 채택되었다. 또한 새해세칙에 대한 개정과 특별기구장인 대변인,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학원자주화추진 위원장 선출, 특별안전으로 지난해 8·15 통

일투쟁과정에서 범정학련 총회 북한대표 환영단으로 방북했던(현재 범정학련 공동사무국 활동) 류세홍·도종화군의 상황을 보고하는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와함께 오는 28일과 29일을 '백만학도 총궐기의 날'로 선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공동기자단**  
최현일 <대학주보>  
강철구 <세종대학보>  
허윤숙 <외대학보>  
김민수 <건대신문>  
이정희 <건대신문>  
김경미 <홍대신문>  
김재성 <한양대학보>  
허진수 <조대신문>

### 현장 이모저모

○...이번 5기 한총련 중앙위는 어느해 보다도 정부의 심한 제재로 힘겨운 회의가 되었다. 그러나 한총련 중앙위는 청년답게 빠른 움직임으로 이를 극복했다. 비밀리에 한양대로 회의장소가 옮겨진 상황인데 전경들은 애꿎은 동국대와 서울대를 원천봉쇄 했으며, 늦은 저녁에 이 소식을 접한 전경들은 성동경찰서로 집결했지만 이 때 중앙위원들은 이미 각자 숙소로 해산한 이후였다. 한편 다음날 새벽 중앙위가 다시 열린 시립대에서는 정문에서

모아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회의에 집중했으며 피로를 이기지 못하던 일부 중앙위원들은 어리둥절해하기도 했다. ○...회의장소가 외부에 알려지자 언제 회의장이 봉쇄될지 모를 긴장된 분위기가 감도는 상황에도 임시의장의 여유있는 회의 진행에 회의장은 편안한 분위기였다. 전북총련에서 "의장님 사랑해요"라는 메로를 휴식시간에 드리자 "임시 자(자)도 빼는군요"라며 긴장된 분위기를 다소 해소시키기도 했고, 이어서 전북총련이 조

### 시간에 쫓겨 성급히 종결

부터 수위아저씨들이 학생중세시를 요구해 중앙위원들은 긴장하기도 했다. ○...한총련 중앙위원들은 각 대학의 대표인 만큼 회의에 임하는 자세도 책임있는 모습이었다. 22일에는 회의가 새벽부터 시작되고 열면 논의가 이뤄지면서 중앙위원들은 그동안 쌓인 피로로 인해 몰려오는 졸음과의 전쟁(?)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도 했는데, 때 아닌 겨울에 에어컨을 트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충청총련은 책임있게 회의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하나로

콜렛도 드리자 "자기들은 다 먹고 남은 것이 아가워서 저 주는 거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또한 22일이 정월대보름이어서 땅콩을 건네주자 임시의장은 회의를 빨리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먹고 할까요?"라고 말해 긴장된 상황을 오히려 여유있게 풀기도 했다. ○...한총련 중앙위원회의의 이를 책임 21일에는 전국연합회의에 한총련 임시의장이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투쟁노선 토의 등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채 시간에 쫓겨 가볍게 지나친 것 같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 대중적 민족대단결운동 추진

## 전국연합6기 정기대의원대회

민족민주운동의 대표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은 통일운동전선의 통일단결을 위해 올 97년 8·15통일행사를 전국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민족회의가 참여하는 대회로 성사시키고, 남과 북 해의가 함께하는 거족적인 대회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은 지난 22일 (토) 종로 5가에 위치한 기독교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6차 전국연합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부분의 안건이 표결을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사업방향 승인에 대한 안건에서 8·15통일행사로 관련, 대회기조와 대회추진방식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다. 대회기조의 원안인 △통일운동전선의 단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중적인 민족대단결운동을 추진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인천연합에서는 △통일운동전선의 단결을 위해 전국연합, 범민련, 민족회의가 참여하는 대회를 성사시킨다 △대중적인

민족대단결운동의 성과를 모아 남과 북, 해외가 참여하는 거족적인 대회를 성사시킨다는 개의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회추진방식에 있어서는 광주전남연합에서 △전국동시 다발적인 형태로 대회를 추진한다 △대규모 민족대토론회를 진행한다 △하나의 대회시 수도권이 집중하여 중앙행사를 가름한다 라는 원안에 대해 △통일행사는 하나의 대회로 집중해서 치른다는 개의안을 제출했다. 이 개의안에 대해 장시간 찬반의의를 거친 뒤 결국 회의규칙에 따라 10여분의 휴회를 갖고 인천연합과 광주전남연합회에 제출한 개의안에 대한 대의원과 중앙위원의 서명을 얻어 기립표결에 들어갔다. 표결결과 대회기조에 관한 개의안은 전체 대의원 3백97명중 찬성 2백3명으로 과반수를 넘어 통과됐다. 그러나 대회방식에 관한 개의안은 찬성 1백93명으로 부결됐다. 곧이어 진행된 전국연합사업기조 전체 원안에 대한 찬반표결은 전체대의원

중 3백94명이 찬성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아울러 15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민민운동전선의 방침에 관한 건에서는 △대선에 있어서 민민운동전선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독자후보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논의한다라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리고 이 정치세력화에 대한 문제는 △적당한 시기에 임시의대의원대회를 열어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제5기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건, 제6기 사업방향 승인에 관한 건 등을 포함해 총 9개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한편 앞서 열렸던 전국연합 중앙위원회에서는 한총련 대의원 수가 1백70명에서 70명으로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문제는 이후 중앙위를 다시 소집해 전체 대의원 수를 조정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공동기자단>



▲지난 22일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열린 6차 전국연합대의원회의

### 사 회 단 신

#### 대학생 카드사용 월평균 20만원

서울대 소비자동학과 대학원생 서경의씨가 서울지역 대학생 4백 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석사논문 '대학생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중 3명(27.7%)인 1백31명이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이용횟수는 2.06번이며 이용금액은 20만5천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신용카드 소지자는 아르바이트나 과외등을 통해 한달 평균 39만7천원을 벌고 은행 예금잔고가 평균 64만8천원이나 되어 꽤 높은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경일 하루전에도 국기계양

3·1절을 하루 앞둔 2월28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태극기가 공공장소에 게양되었다. 3·1절을 하루 앞두고 국기를 게양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자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는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한해 하루 전날부터 당일까지 이틀간 국기를 달도록 돼있다.

#### 뽀빠이 이상룡씨 무혐의처리

지난해 11월 한국어린이보호회의 심장병 어린이 돕기위한 후원금 유용혐의로 피소된 '뽀빠이' 이상룡씨가 지난 28일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후원금 유용사실에 대해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함께하는 하이텔 -

네트존의 고향 하이텔 -

하이텔에는 경희대동신동호회가 개설,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go khu

## 앞서는 새내기의 봄은 하이텔에서 시작된다!

# 하이텔 봄축제 한마당

꿈과 희망으로 봄을 맞는 새내기 여러분! 보다 멋진 새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이버스페이스로 오십시오. 하이텔이 펼치는 봄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당장 하이텔에 가입하세요. 평생 잊지 못할 깜짝 행운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이텔에 가입하는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특히 여성 신규 가입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 사은품  
대상 (1명): 대우자동차 뉴비라 1대  
1등상 (2명): 팬타럼 PC 2대  
2등상 (5명): 후대전환 CT-2 2대  
행운상 (100명): 인터넷 어드벤처(CD-ROM) 2대
- 당첨자 발표일  
하이텔 공식홈페이지(www.haitel.co.kr)에 공지합니다.
- 여성이용자를 위한 특별 시은행사  
여성상 (1명): 팬타럼 PC 1대  
특별상 (5명): 후대전환 CT-2 2대  
※500, 1000, 3000, 5000, 10000원씩 여성이용자만 해당  
행운상 (100명): 인터넷 어드벤처(CD-ROM) 2대

※ 신규 가입자에게는 HITEL pack(하이텔 전용 이야기 7.0, 7.3)을 무료로 드립니다.  
※ 가입/문의: 080-022-1410, (02) 513-2200

정보문화의 꽃  
**한국PC통신**  
Korea PC Telecom Co., Ltd.